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 6. 24.(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6. 6. 24(금) 회의종료후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경제분석과, 자금시장과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한국은행 안정총괄팀 금융감독원 금융상황총괄팀 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실
담당과장	최지영 과장 (044-215-4710) 윤인대 과장 (044-215-2730) 주환욱 과장 (044-215-2750) 강영수 과장 (02-2100-2850) 변성식 팀장 (02- 750-6834) 엄일용 팀장 (02-3145-7490)	담당자	김승환 사무관 (044-215-4712) 이근우 사무관 (044-215-2731) 이희곤 사무관 (044-215-2751) 정종식 사무관 (02-2100-2851) 박완근 차 장 (02- 750-6755) 곽원섭 수석조사역 (02-3145-7492) 김위대 부장 (02-3705-6240)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브렉시트 확정에 대응한 대응방향 논의

- ☐ 기획재정부는 6.24일(금) 오전 8:00시 개최에 이어 14:00시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재차 개최하여 영국의 국민투표 진행상황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 투표 상황 평가 】

- ☐ 오후 13:30분 현재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 (13:30분 현재) 투표율 91.6%, 브렉시트 찬성 51.8%, 반대 48.2%

- 이에 따라 유로·파운드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하락하는 등 시장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 주요국 증시(6.24): 중국(△1.1), 일본(△7.0), 홍콩(△4.7), 대만(△2.9)

** 주요국 환율(6.24): 파운드(11.6%절하), 엔화(5.9%절상)

- 우리나라의 금융 및 외환시장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 예상 영향 】

- ☐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투표결과가 영국의 EU 탈퇴로 확실시 됨에 따라 영국은 물론 향후 유럽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므로 당분간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대응 방향 】

- ☐ 정부는 이번 브렉시트 결과가 우리 경제에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 ① 우선 금융과 실물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반장: 기재부 차관보)을 즉시 가동하여,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 특히, 주요통화 움직임,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외국인 자금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거시경제금융회의(차관급)를 수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
하여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 ②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스무딩 오퍼
레이션을 포함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금융사들의 외화유동성 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③ 우리나라와의 영국과의 낮은 무역관계* 등을 감안할 때,
실물부문의 영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 금융부문의 변동성이 수출 등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④ 금번 브렉시트 결정에 대해 **G-7, ECB 등이 공동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 우리도 **G-20, 한중일,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조속한 글로벌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특히, 금번 AIIB 총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국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15년 한국의 전세계 수출액 대비 對영 수출액 비중 : 1.4%(74억불)

- 금번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은 글로벌 경제는 물론
우리경제에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으나,
 - 우리의 경우 정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과
재정여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
 - 정부는 그간 점검해 온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